

##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7)

##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서울대학교 김종삼\*

1986年 11月부터 2年間 한국정보과학회의 회장으로서 會務를 책임 맡아 미력이나마 성심성의껏 學會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책은 본인의 일생동안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을 회고담의 형태로 집필하여 달라는 편집자의 의뢰를 받고 망설임도 있었으나, 사실대로 기록하여 놓는 것이 후학들의 학회 활동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참히 붓을 들게 된 것입니다.

학회 창립당시의 재정적인 곤란도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된 상태였고, 회부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으므로 좀더 내실을 기하고, 한국에서 유수의 큰 학회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정보 산업계의 명실 상부한 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학회 사무실의 이전 확장이 현안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회 사무실은 구 의동 전철역 옆에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해 세들어 있었으나 협소해서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당시는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의 방을 분양 받아 분양금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속성상 접착은 학회가 위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학회 회장단의 문제 제기로 다른 사무실을 물색하기로 결정하고 각자 구역을 정해서 위치가 좋은 빌딩의 사무실을 물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신림동 전철역 근처에서부터 방배동까지 전철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

동산 중계업소에 문의하면서 방배동까지 갔었습니다.

방배동 전철역 바로 옆의 머리재 빌딩 내 중계업소에 들러 물어보니 이 건물 내 사무실을 건물주가 매매코자 한다는 정보를 듣고 건물주를 만나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건물주는 한양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분으로 학회가 원한다면 대 환영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하다 보니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많아 자기 같은 학자가 관리하기가 어려워 사무실 별로 매각기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후 몇 차례 이용택 사무국장과 함께 방문 조사해보니 하자가 없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55여평은 그 당시 우리 학회로서는 큰 재산이었고, 고도제한으로 5층까지이지만, 고도해제가 될 경우 10층으로 올릴 기초 기반을 하여 냈으므로 그때 가서 그 정도의 지분을 실버로 더 추가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가격도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부동산 경기가 확산되면서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보았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다행스러웠던 것은 분양 받았던 오피스텔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었고, 학회 경비절감과 기금, 학회 임원들의 모금으로 구입 금액을 깨끗하게 충당하였습니다.

학회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므로 많은 사업과 행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각 사업별로

\*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8대 회장

계획시점에서부터 독립채산제를 강조함으로써 관련기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업조직 위원장, 혹은 재무위원장(그당시 김하진 교수님)과 함께 많이 뛰어 다닌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회는 전산교육 연구회, DB연구회, 전문대학 전산 연구회, 인공지능 연구회 4개의 연구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회는 전문 학술 활동이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연구회를 모든 분야에 확대 신설하여 연구회별 학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 연구회, 프로그래밍언어 연구회, 컴퓨터시스템 연구회,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회 4개의 연구회를 신설토록 유도하였고 호남 제주지부, 영남지부를 신설하여 조직 운용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학회 정관을 비롯한 제반 규정, 내규 등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임기(11月 1日)와 회계연도의 기간(1月)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번잡한 회계보고를 단순화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회계

연도와 맞추어 1월부터 시작토록 정관을 개정하였고, 또한 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던 것도 현실에 맞추어 대폭 증원하였고, 학회지와 논문지 발간도 연 4회에서 각 6회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내용의 제정, 개정도 많으나 큰 줄거리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회 15연사 편찬 건으로, 초창기의 기록과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진다는 의미에서 학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학회 15연사를 발간키로 하고 15연사 편집위원회(위원장:조정완 전임 회장님)를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할 수 있게 지원한 일입니다. 본인의 임기 중 마무리가 덜 되어 다음 회장이신 이철희 회장님 때 마무리되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제가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회원님과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